



## 한국은행, "하반기 중국 경제 5%대 성장" 예상

기사입력 2020-07-05 15:14 최종수정 2020-07-05 15:27



코로나 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중국 경제가 하반기 내수 회복과 함께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는 지난달 28일 '최근 중국 및 일본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으로 중국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살아날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용 문제, 외부적으로는 홍콩보안법 제정·해외전염병 2차 확산·미국 대선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국 위안화 환율이 홍콩 문제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될 때마다 출렁이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 등으로 미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하반기 일본 경제도 경제활동 부진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와 완화적 금융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이 줄면서 억제된 소비의 현재화, 기업 생산확대 등과 함께 하반기 일본의 경제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간으로는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0.5% 수준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 우리 동네 무슨 일이? KBS지역뉴스
-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6&aid=0010864035>

---